



녹지않는 아이스크림 아시나요?

완도군, 日서 기술 전수... 내년 해조류박람회서 첫 선

2014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앞두고 완도군이 일본에 '녹지않는 아이스크림' 제조기술 전수단을 파견해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완도군에 따르면 김종식 완도군수를 단장으로 식품제조 관련 공무원과 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 9명의 전수단은 1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가나자와시에 있는 일본해조식품연구소를 방문해 기술전수에 나섰다.

녹지않는 아이스크림과 즉석 해조국수 제조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5월 김 군수가 박람회 해조

류기업과 참여 기업유치를 위해 일본 해조식품연구소를 방문해 시라이시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성사됐다.

녹지않는 아이스크림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아이스크림에 비해 칼로리가 낮은 다이어트기호식품이며 상온에서도 40분동안 녹지 않는 특허 제품으로 일본에서 인기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자리에서 김종식 완도군수는 "녹지않는 아이스크림은 내년 해조류박람회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체험상품이 될 것이다"고 감사를 표시하자, 시라이시 회장

은 "한국분들이 우리 가나자와시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완도군은 내년 해조류박람회 체험 행사에 웰빙식품 시식체험, 해조류미용체험 등 각종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조류가 들어간 녹지않는 아이스크림과 즉석 해조국수를 만들어 먹는 체험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해조류 관련 기업체들이 박람회에 참가해 해조류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해조류 식품과 뷰티용품에 대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산업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전남개발공사, 고강도 경영쇄신 본격화

'남악골프연습장' 매각... 사업구조조정·조직개편 나서

전남개발공사가 남악신도시에 있는 '남악골프연습장' 매각에 나서며 등 고강도 경영 쇄신작업에 들어갔다.

18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사업구조 조정 차원에서 남악골프연습장 등 민간과 겹치는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등 사업 다각화로 수익을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남악신도시에 남악골프연습장은 이달 중으로 매각절차에 들어간다. 감정평가액은 176억원이다.

개발공사는 또 신규사업으로 은퇴자도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섬지역 등 사업성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 땅들을 찾아 미리 매입하는 '토지 선매입 사업'도 할 계획이다.

특히 관심이 집중된 무안 오토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올해 말 발주한다. 60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등 재원은 선분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개발공사는 이와함께 조직개편과 관련해 사업별로 일부 기능이 이원화돼 있고 중복돼 있는 구조를 원스톱(One-Stop)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통폐합하는 등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조직 슬림화와 함께 적재적소 인력 배치, 직원 업무만족도 제고, 내부결속력 강화도 추진한다. 조직 개편과 인사는 이달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개발공사는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체 수준의 마케팅 활동을

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적 우수직원은 근무성적 평가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전승현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달성 등 안정적인 영속(永續)기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구조 조정과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는 2004년 전남도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 자본금 4814억원, 자산총액 1조829억원에 남악신도시, 빛가람혁신도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등 모두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34%로 전국 16개 광역자치체 도시개발공사 평균 부채비율 228%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보이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해풍에 말린 진도 '은빛 멸치'

18일 진도의 한 선착장에서 아늑네가 갓 잡아 온 멸치를 말리고 있다. 선명한 은빛을 띠어 '은빛 멸치'란 별칭을 가진 진도 멸치는 1.5kg 1상자에 5만~10만여원으로 일반 통멸치보다 2~3배 비싸다. (진도군 제공)

전북



"섬진강 폐철도길, 자전거로 달려요"

순창군 향기유원지 인근 '섬진강 횡단 폐철도 교각·터널'이 자전거길로 재탄생해 오는 31일 완전 개통한다. 사업에는 23억원이 투입됐고 길이는 1.3km에 이른다. (순창군 제공)

공공기관 이전 '스타트'

지방행정연수원 이달말 완주

1965년부터 22만8000명의 지방공무원을 길러낸 지방행정연수원이 이달 말 경기 수원시에서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8일 연수원을 방문해 전북 이전에 관한 기관·직원 발원방안을 보고 받고 수원 시대 마지막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 한편 기념 표지석 제막식에도 참석했다.

연수원은 전북 이전을 계기로 연수원 비전을 '지방 핵심리더를 양성하는 세계최고 교육기관'에서 '개방과 협력으로 신뢰받는 창의적 지방자치리더 양성'으로 바꾸고, 교육과정에 참여와 토론을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유 장관은 '성숙한 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국정 기조의 핵심인 '국민행복'을 구현하려면 정부정책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보완해 주민 행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본관 앞마당에 건립된 표지석에는 1965년 9월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서울 쌍문동에서 출발해 1978년 경기 수원시 광교산 아래로 옮기고 나서 인재를 양성해온 과정이 모두 담겼다.

유 장관은 "우리 부 소속 기관의 첫 지방 이전인 만큼 의미가 크다"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실현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부안관광산업, 주민이 나선다

지역민 주체적 출자... 조합 구성해 사업 발굴

정부 시범추진 '관광두레 만들기' 대상지 선정

부안군이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관광두레 만들기' 대상지로 선정됐다.

'관광두레'란 지역주민이 주체적·자발적·협력적으로 출자 및 조합 등을 구성하고 이미 조성된 공공시설 및 자원으로 관광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관광사업 경영공동체 조직을 말한다.

군은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지자체의 협력 사업인 '관광두레 만들기' 대상지역으로 부안군이 해안형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광개발사업이 시설 조성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사후 운영이 부실해 주민혜택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미흡하다는 진단 아래 추진되는 새로운 방식의 관광사업 운영 공동체 육성사업이다.

실례로 스위스의 '오솔길 프로젝트'처럼 공동체복지 회복과 융복합형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견인하겠다는 취지다.

시범사업지 선정은 지난달 지역 현황 문헌조사와 지역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오며 오는 2015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은 관

광두레만들기 사업 추진을 전담할 관광두레프로듀서 1명을 선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자원조사와 지역진단, 역량강화, 관광두레 조직화, 사업발굴, 대학생인턴 운영,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문화유적지와 먹거리, 문화생태 탐방로, 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에 관광두레 브랜드를 부여하고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 가운데 정부와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관광두레프로듀서 선발과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지역특화모델 개발 등을 협조할 계획이다.

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이 사업은 주민 주도 하에서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라고 말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iv0681@

올 여름 휴가 해남으로 오세요

'네버랜드를 찾아서'

내일부터 공룡박물관서 '공룡 의인화 작품전'

해남군 황산면 공룡박물관이 오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공룡 의인화 작품 전시회'를 연다.

18일 박물관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는 '네버랜드를 찾아서'를 주제로 구성된 조미숙 작가의 공룡 의인화 작품 40여 점이 전시된다.

네버랜드 연작은 지점토와 원목을 얇은 판재로 만들어 데코와 주(재료물 오려붙여 장식) 기법으로 공룡을 의인화해 전해주는 우화다.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는 공룡 퍼즐 작품도 있다.

전시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박물관 정기휴관을 위해 휴가기간인 8월 25일까지는 매일 개관한다.



공룡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가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사랑, 행복, 희망 등 감성적인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한 여름밤 숲속 음악회'

26일부터 가학산 자연휴양림 특별무대

해남군이 계곡면 가학산 자연휴양림에서 '한여름밤 숲속 음악회'를 연다.

오는 26일, 다음달 2일, 9일 오후 8시 휴양림 특별무대에서 열릴 이번 음악회는 가학산 절경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래식 합주, 피아노와 성악의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보이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으로 진행된다.

박철환 군수는 18일 "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음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학산 자연휴양림은 13동의 숲속의 집, 문화휴양관(5개 객실), 오토 캠핑장, 일반 야영장을 갖추고 있다. 이용료는 객실 평형에 따라 4만원에서 단체용 12만 원까지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단신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단, 춘향골 남원 방문

재외동포재단과 한국YMCA전국연맹이 주최하는 2013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단이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간 춘향골 남원을 방문한다.

이번 청소년 연수단은 세계 17개국 60여명 재외동포 청소년들과 울산현 대고등학교 학생 150명으로 구성됐다. 연수단은 2박3일간 남원에 머무

르면서 지리산둘레길 1코스, 광한루원, 국악의 성지, 운봉정보화마을 농촌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문화유적지를 관람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도시와 농촌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부모님 모국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된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세계시문학회, 고창서 심포지엄... 서정시 교류

세계시문학회가 주최한 세계시문학회 심포지엄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고창군에서 열렸다. 제31회를 맞은 세계시문학회 심포지엄에서는 세계 시인들의 정성어린 서정시 교류를 위해 1982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첫날 선운산우체국 수련원 연회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고창군 김인호 부군수, 조병익 군의회 부의장, 임동

규·오규호 도의원, 정하수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및 세계시문학회 관계자,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18일에는 미당시문학관과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 판소리박물관, 고창읍성 등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의 주요 문화관광지를 방문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정읍시립박물관 주간... 보물찾기 등 이벤트 풍성

정읍시립박물관은 18일 "내달 6일부터 11일까지 1주일간을 박물관 주간으로 정해 시민과 관광객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겨울에 받아보는

편지', '매일매일 박물관 보물찾기', '시원한 물풍선 던지기 게임', '고무보트 타고 강 건너기 체험' 등이다. 박물관 1층 로비에서 운영중인 뮤지엄 샵에서는 이 기간동안 문화상품에 대해 1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력 증진 간담회

남원시는 지난 17일 인월면 달오름마을에서 남원시 농촌마을 위원장 등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조성돼 온 농촌체험 및 휴양마을을 활력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을 통해 농

업의 부가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남원시에서는 그동안 18개 마을을 조성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촌체험마을 위원장 및 사무장, 한국농어촌공사, 도시민유치협의회,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